

하나님 사랑 —————

2026
Vol. 281

이웃사랑



발행일
2026년 7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04

CENTER

영상의학과

최신 장비와 숙련된 기술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08

TEAM

영상의학과 촬영실

정확한 진단이 시작되는
‘병원의 눈’

10

MEDICINE ①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

효과는 강력하고, 통증은 최소화하는
방사선색전술

12

MEDICINE ②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특별편

AI와 전문의의 시너지,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14

선교국 소식

2026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답사
제3회 예수병원 행정사무직 수련회
2026 예수병원 3년차 간호사 수련회
2026 전직원 신앙사경회

19

연세의대 본과 4학년 의료 선교학 실습
예수병원에서 만난 의료 선교의 가치

20

국내 기독교병원 소개

여수애양병원

사랑과 치유로 걸어온 100년,
여수애양병원의 선교와 비전



22

ALUMNI

효자내과 김미애 원장

의사로 성장시켜 준
고마운 ‘처음’입니다

24

MISSION COLUMN

혈액종양내과 박효숙 과장
익숙하다는 것과 안다는 것



26

PMC ON

27

PMC NEWS

언론 속 PMC

36

DONATION

후원 안내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최신 장비와 숙련된 기술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는 영상 검사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이자 진료보조분과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몸속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봄으로써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해준다. 예수병원 영상의학과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숙련된 의료진을 기반으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밀한 협진과 AI 기술로 환자 편의와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김윤환 과장

유은애 과장

박범균 과장

최진솔 과장

이미숙 과장

노경희 과장

정수연 과장

김수정 과장

강동민 과장

영상의학과
과장 특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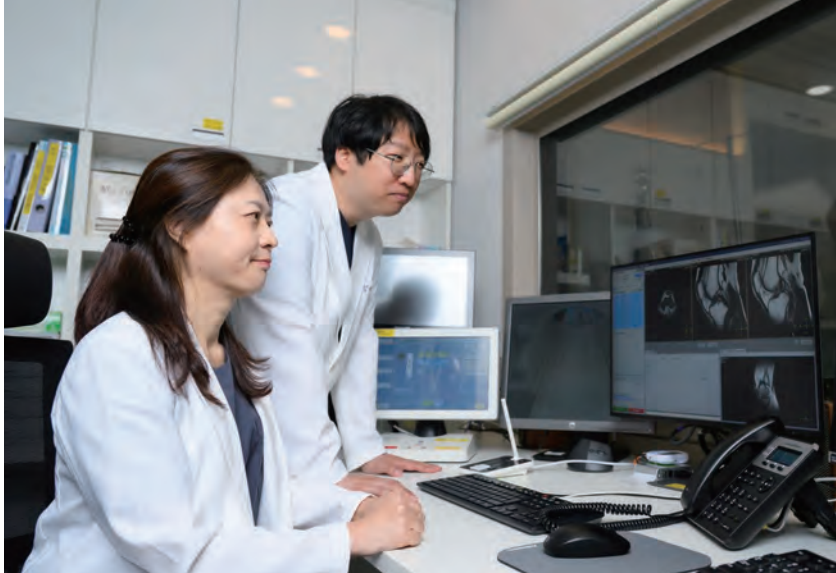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날이 발전해온

예수병원 방사선과는 1963년 의사 한 명과 방사선사 여섯 명, 사무원 세 명으로 이뤄진 방사선과라는 독립된 분과로 시작했다. 이후 1972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신경·두경부 두 명을 비롯해 흉부와 복부 두 명, 근골격계 한 명, 인터벤션 두 명 등 의사 아홉 명과 다수의 방사선사, 전담간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X선을 사용해 ‘진단방사선과’로 불렸으나 방사선을 쓰지 않는 초음파와 MRI 검사의 비중이 크게 늘고, 학문 영역도 확장되면서 2007년부터 현재의 ‘영상의학과’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영상 검사에는 X-ray를 이용한 일반 촬영과 X선으로 몸의 단면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전산화 단층촬영(CT)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 흔히 MRI라 부르는 자기공명영상도 많이 활용된다. 강력한 자기장과 전파로 인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다. 초음파 검사로는 인체에 무해한 음파를 몸속으로 쏘아 장기에 부딪혀 반사돼 돌아오는 파동을 실시간 영상으로 변환해 여러 기관과 연부조직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석회화나 유방 병변을 정밀하게 탐지하는 디지털 유방 촬영 등도 포함된다. 소화기와 비뇨기, 담도계 이상과 기능을 평가하는 동안 엑스선(X-ray)을 연속해서 쏘아 몸속 움직임을 실시간 동영상처럼 관찰하는 투시 영상 검사도 있다. 인터벤션은 간암 치료에서 핵심 임무를 맡는다. 종양으로 가는 혈관을 막는 화학색전술(TACE)부터 방사성 물질을 혈관에 직접 투여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사선색전술, 그 외 조직검사, 다양한 혈관계와 비혈관계 시술을 시행하며 정확한 진단을 이끈다.

유기적인 협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내과 의사는 내과학, 외과 의사는 외과학 전문가이듯 영상 의학과 의사는 영상의학 전문가이기에 똑같이 두 눈으로 사진을 본다고 해도 일반 임상 의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초음파, CT, MRI 검사는 신체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를 얻어 분석하는 과정이 들어가 병리학과와 생리학적인 부분부터 검사 원리에 대한 물리·화학적 지식까지 총동원해야 최대한 실제에 근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충분한 수련과 경험이 쌓이면 임상 의사도 대등한 능력을 지닐 수 있겠지만, 현대의료는 고도로 전문화,



분업화돼 있고 자기 전문 분야 지식을 쌓기에도 바쁜 현실에서 대등한 판독 능력을 갖추는 일은 무척 어렵다. 영상 의료 장비 관리도 영상의학 전문가 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다. 예수병원 영상의학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타 진료과 의사들 문의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이나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결과들을 신속히 알려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돕는다. 인터벤션 파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시술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힘쓴다. 영상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이기에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며, 다학제와 각종 컨퍼런스, 학회에도 활발히 참석하며 최신 식견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는 안전하게, 진단은 정확하게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의사와 방사선사)이 매 순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정확성’이다. 먼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킨다. 첫째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ALARA 원칙)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방사선량을 줄인다. 최신 장비와 차폐 장구를 활용해 피폭을 최소화하며, 조영제 사용 전에는 신장 기능과 알레르기 이력을 확인하고 아나필락시스(쇼크) 등에 대비한 응급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소아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촬영 장비는 철저히 소독해 감염을 관리한다. 진단의 정확성과 오진 제로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환자의 증상과 의심 질환에 따라 CT·MRI 촬영 각도와 단면 두께, 조영제 주입 시점 등을 맞춤 설계해 최적의 영상을 얻는다. 또한 임상 진료과와 긴밀히 협력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영상을 판독한다. 뇌출혈, 동맥파열, 장천공 등 생명을 위협하는 소견이 발견되면 즉시 주치의에게 보고해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높은 전문성과 집중력으로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임하기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이 같은 핵심 가치를 강조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협조를 부탁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해주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치료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지만, 환자의 모든 영상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의료용 방사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T나 X-ray 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 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통제된다. 검사를 받지 않아 질병을 놓치는 위험보다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을 빨리 고치는 이득이 훨씬 크다. ‘안전을 위해 금식과 대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나 복부 초음파 시 금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장기 움직임을 선명하게 보고, 혹시 모를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영제 부작용이나 폐쇄 공포증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과거 이력 공유도 중요하다. 이전에 조영제 주사를 맞고 가려움, 구토, 호흡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면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예방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진다. 폐쇄 공포증은 안정제 처방이나 폐쇄감이 덜한 오픈형 장비로 대체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며 편안하게 검사에 임한다면, 더욱 정확한 진단으로 더 나은 결과에 당도하리라는 믿음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정확한 진단이 시작되는 ‘병원의 눈’

영상의학과 촬영실

전산단층촬영실(CT)

영상의학과 촬영실은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든 몸속 상태를 확인하는 곳이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첨단 영상 장비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한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병원의 눈’이라 할 수 있다.



최대한 안전하게, 최고로 정확하게

영상의학과 CT실은 11명의 숙련된 방사선사가 호흡을 맞춰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뇌와 심장, 복부 등 몸 전체의 미세한 병변까지 잡아내기 위해 환자 맞춤형 프로토콜로 정밀 촬영을 시행하고, 고해상도 3D 입체 영상 재구성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인다.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저선량 촬영 기법’을 적용하고, 검사 전 철저한 스크리닝으로 조영제 부작용을 예방한다. 일일 점검으로 최상의 영상 질을 유지하며, 항상 촬영실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관리함으로써 환자 간 교차 감염을 막고 있다.

세계 최대 수준의 CT 라인업을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3대 첨단 장비인 지멘스 소마톰 고 탑 (Siemens SOMATOM go.Top), 지멘스 소마톰 테퍼디션 플래시 (Siemens SOMATOM

Definition Flash), 캐논 아퀴리온 (Canon Aquilion Series)이다. 전신 촬영 5초 내외로 촬영 시간을 단축하고, AI와 주석 필터 기술로 방사선량을 최소화하며, 128채널·3D 입체 진단으로 미세 병변의 조기 발견과 정밀 진단이 가능해졌다.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으로

CT 검사는 질병을 찾아내고 올바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치료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에 전 구성원은 매 순간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으로 장비 앞에 선다. 그러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할 때 반드시 지키는 약속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두려움까지 살피는 ‘따뜻한 눈빛’이다. 차가운 기계와 낮선 촬영실은 환자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검사 전 환자와 눈을 맞추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둘,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예방하는 ‘철저한 안전’. 정확한

검사만큼 중요한 건 바로 환자의 안전이다. 안전 앞에서 한 치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며,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셋,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집중력’. 촬영한 영상 한 장에 치료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최고의 영상 질을 구현하기 위해 아주 작은 움직임, 숨 고르기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전 질문에 정확히 답하고, 검사실 안에서는 11명의 전문가를 믿고 편안하게 검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확한 영상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을 되새기며 기술을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환자들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다는 영상의학과 촬영실. 이러한 다짐이 바탕이 되어 ‘마음도 치유하는 의료진’으로서 ‘가장 안전한 검사실’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효과는 강력하고, 통증은 최소화하는 방사선색전술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

2008년, 국내 최초로 방사선색전술
(TARE: 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을
시행하시며 간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여셨습니다. 어떤 시술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암세포가 있는 곳에만 ‘초소형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정상 조직 손상 없이 암만
쫓 골라 태워버리는 최첨단 시술입니다. 기존의
간암 색전술이 암으로 가는 혈관을 굵게 죽이는
방식이었다면, 방사선색전술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방사성 물질(이트륨-90)이 들어간 미세 구슬을,
간동맥을 통해 암세포 바로 옆에 심어두는 방식입니다.
이 구슬들이 암 조직 내부에서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내며 암을 직접 파괴합니다. 사타구니 쪽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고 진행하기 때문에 칼로 가르는 수술과
달리 몸에 무리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치료법과 효과 면에서 방사선색전술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강력한 효과’와 ‘기분 좋은 편안함’.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치료로 잡기 힘들었던 10cm가
넘는 거대한 간암이나 혈관까지 파고든 진행성 간암에도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암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수술 불가능한 환자분들이 간 절제 수술이나 간 이식을
받도록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환자가 느끼는
부작용이 극도로 적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나
기존 색전술은 시술 후에 심한 통증, 구토, 고열(색전후
증후군)로 며칠씩 앓아누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방사선색전술은 정상 간 조직을 거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다음 날 바로
걸어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시술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사전
설계’입니다. 방사선 물질이 암세포가 아닌 위나 폐, 대장
같은 다른 장기로 흘러 들어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 지도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1차 모의 시술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암으로 가는 길목은 확실하게 열고, 다른 장기로 새는
길목은 미세 코일로 완벽하게 차단하는 ‘내비게이션
작업’이 핵심입니다. 아주 미세한 혈관 하나까지
정확하게 찾아내 방사선량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해 투여하는 의사의 숙련도와 집중력이 최상의
결과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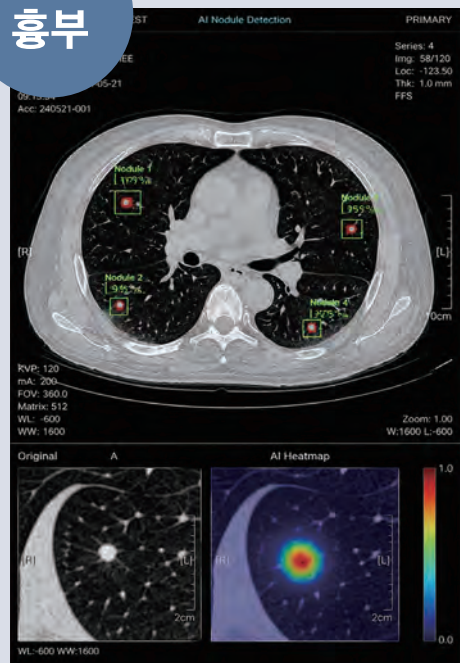
최근 호남 지역 최초 방사선색전술 100례를
달성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100번의 시술을 했다’라는 숫자보다 호남 지역
간암 환자분들이 힘든 치료를 받기 위해 더 이상
서울 대형 병원까지 멀리 원정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정표를 세운 것 같아 감회가 깊습니다. 100분의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그 가족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시술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이 성과는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방사선 물질을
정밀하게 다뤄준 방사선사 선생님들, 수술실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어시스트해 준 간호사 선생님들 등
우리 인터벤션실 팀원 전체가 완벽한 호흡을 맞췄기에
단 한 건의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100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를 보내주신 환자분들과 우리
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AI와 전문의의 시너지,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Part 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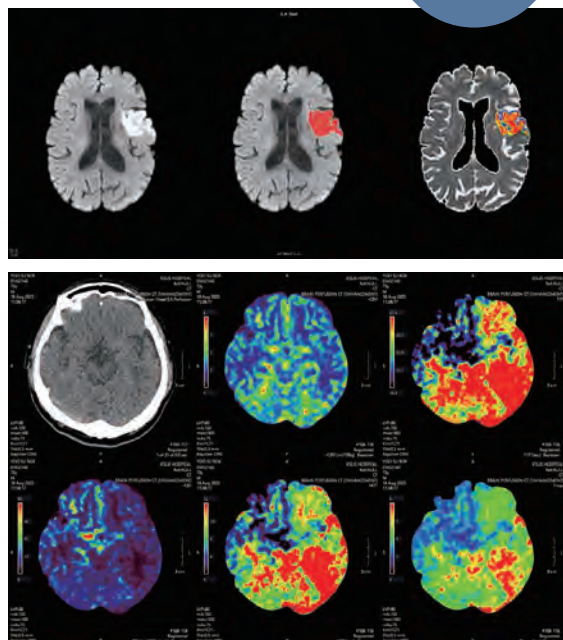
“AI 기반 영상분석과 전문의의 정밀 판독으로
국가폐암검진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이룹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적이 크게 향상되는 질환입니다. 예수병원 영상의학과는 국가 폐암 검진을 통해 폐 결절 등 다양한 흉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판독의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AI 흉부 영상 분석 솔루션을 국가 폐암 검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저선량 CT 영상을 분석하여 놓치기 쉬운 미세 폐 결절의 검출을 돕고, 폐기종의 분포와 범위까지 객관적으로 정량 분석하여 전문의의 판독을 뒷받침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AI의 정밀한 정량 분석이 조화를 이루어, 환자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혈관 질환과 증가하는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은 ‘정확한 초기 진단’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병원 뇌신경 파트는 세부 전문의의 풍부한 임상 경험에 최첨단 AI 딥러닝 솔루션을 더한 ‘더블 체크 시스템’으로 진단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딥러닝 기술은 CT·MRI 촬영 시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제거해 미세한 뇌혈관까지 선명하게 구현합니다. 동시에 방사선 피폭량은 크게 줄여, 반복 검사가 필요한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분 1초가 급한 응급 뇌 CT·MRI를 AI가 실시간 분석하여 뇌출혈과 혈관 막힘을 즉각 검출합니다. 특히 뇌경색 부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골든타임 내 적절한 혈전 제거술 등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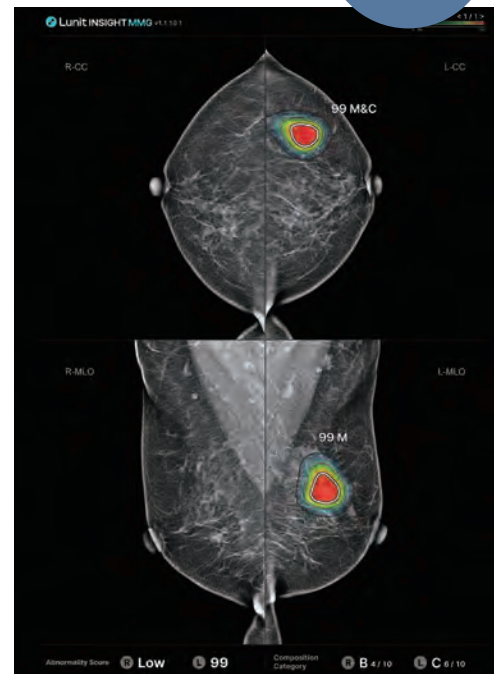


Part 뇌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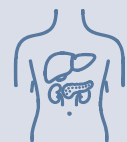


“정기적인 국가암검진과 첨단 AI 솔루션으로
유방암 조기 발견의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예수병원 영상의학과는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놓침 없이 정확한 진단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판독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했습니다. 유방촬영술 중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석회화나 작은 결절까지 AI가 정밀하게 분석하여 미세 병변의 진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검사는 줄여줍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숙련된 경험과 첨단 AI의 정밀한 시너지를 통해, 환자분들께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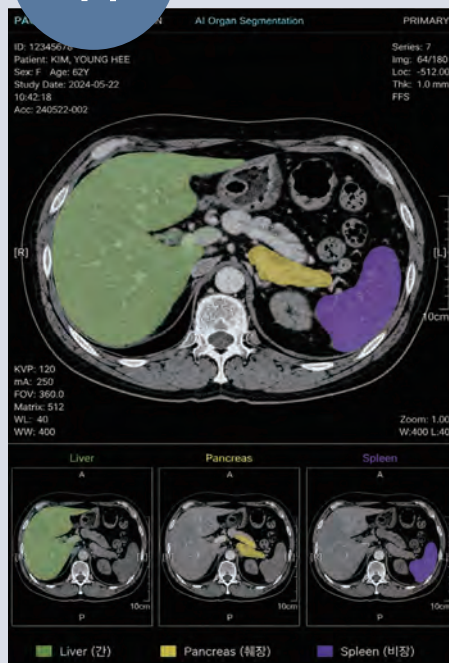
Part 유방



“위, 간, 췌장 등 다양한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는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병원 복부 파트는 2명의 세부전문의가 복부 및 비뇨생식기 질환의 전문적인 판독과 진료를 담당합니다. 특히 간세포암은 영상 의학과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특징적인 영상 소견만으로도 조직 검사 없이 진단이 가능하며, 암의 범위와 전이, 치료 효과까지 정밀 평가하여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수병원은 고해상도 CT와 3T MRI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흡을 참기 힘든 고령 환자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노이즈 없는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상 각 과와의 유기적인 다학제 협진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Part 복부



선교사의 삶을 통해 돌아본 의료인의 사명

2026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답사

기간 2026. 5. 30.(토)

장소 양화진 선교묘역



14 어린 시절 이웃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을 때
섬긴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대학교와
예수병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의 빛을 진 이곳에서
책임 간호사로 환우들을 섬긴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한 양화진 선교사 묘원
답사는 메말라가던 제 안의 열정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는 귀한 영적
선물이었습니다.

구한말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온 이들이
문힌 양화진은 한국 기독교 역사와 근대 의료·교육의 초석이
된 거룩한 땅입니다. 특히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소명으로 시작된 예수병원의 뿌리가 이곳과 맞닿아 있기에,
양화진은 제게 단순한 묘원을 넘어 영적인 고향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선 땅에서 가장 젊고 빛나는 삶을 기꺼이 내어놓은
선교사들의 삶은 치열한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조선을 사랑하며 병원과
학교를 세운 그들의 삶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묵직하게
질문해 왔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눈물과 헌신이 거름이 되었기에 오늘날 우리 병원이
든든히 서 있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사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환우를 돌보는 이 자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거룩한 '소명(Calling)'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바쁜 일상 속에 지치고 무뎠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만나는 환우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손길로 섬기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처럼 동료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했던 고백을 품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순수한 첫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일터를 지키며 예수병원의 설립 이념과 선교적 사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답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있다: 사랑의 행정, 치유의 완성!

제3회 예수병원 행정사무직 수련회

기간 2026. 5. 30.(토)

장소 예수병원 본관 4층 예배실



프로그램 중 본인에게 가장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의학박물관 관람 & 선교사 묘역지 탐방

- 박물관과 묘역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지금까지 예수병원을 이끄신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보고
느끼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예수병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잘 모르고 지나칠 것들을 목사님을 통하여 선교사님의
고마움을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호님 의료 선교이야기

- 행정직원으로 느꼈던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선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 행정가의 의료 선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김동호 사무국장님의 의료 선교이야기와 박물관 및 묘역지
관람이 좋았습니다.
- 7인 선교사,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조별토론 & 기념사진

- 토론시간을 통해서 타 부서의 고충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토론하는 시간이 타 부서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느껴져 좋았습니다.
- 타과의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과 한 조가 되어 토론하면서
친해진 것이 좋았습니다.
- 타 부서 선생님들과 미션사진을 찍으며 즐거웠습니다.



Young Leader Camp

최유정 · 51병동

병동에 동기가 없어서 3년차 수련회가 과연 재미있을까 많은 의문과 적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연차를 가진 다른 병동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충과 병동의 선·후배 관련된 힘든 점을 공유하다 보니 요즘 느꼈던 일에 대한 권태로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조별과제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KODA를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나도 이때쯤 해야하는 공부가 있을까, 진심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좀 있으면 프리셉터 교육도 받게 될텐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2일간의 수련기간 동안 좁았던 시야를 확장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힘들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신규가 아니니 병동의 문제, 병원의 문제가 눈에 보이고 이것을 현장의 소리로서 말해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순응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적절히 목소리도 내면서 예수병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간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 예수병원 3년차 간호사 수련회

수련회 기간 2026. 6. 9.(화) ~ 10.(수)

수련회 장소 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조은비 · 52병동

처음 3년차 수련회를 안덕마을로 온다고 했을 때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길래 기대를 안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3년차 간호사를 위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입사 후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을 잃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투덜거리는 일이 많아져 제 자신이 싫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공감됐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소 타 부서에 근무해서 잘 못 보는 동기들과 얘기 나누며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없는 간식, 선물, 커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은 · ICU

3년차 수련회, 1박 2일 동안 병원에서 잠시 벗어나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입사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번아웃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도 받고 다른 부서원 간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증막 체험과 레크레이션, 맛있는 밥과 간식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동기들과 끈끈한 동료애를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도 더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고 즐기다가 갑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도 환자들에게 더 따뜻한 간호를 제공하는 '든든한 3년차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3년차 수련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현 · ICU

병원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던 건 같이 일하는 동기들과 의지하며 일했기 때문인 거 같은데 그만큼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같은 연차끼리는 데이, 이브, 나이트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같은 조로 편성된 OR방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안에만 있어 봤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상황이나 고충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3년차 수련회 끝~♡

홍예원 · 지원간호

어쩌다 보니 간호부로 저희팀이 넘어와서 기회가 되어 처음으로 워크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의사집단에 가깝게 있어서 간호사로서 사실 소속감도 없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동기들과 함께, 선배님들과 1박 2일 동안 가깝게 여러 얘기 나누며 같은 간호사로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로서 더욱 병원을 위해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병원에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저도 IgA 신증을 앓고 있어 여러 고충이 있었으나 주의 은혜로, 동료들의 배려로 이 병원에서 치유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풀어주는 저희 병원과 일하고 있는 동료들, 항상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Witness

다 시 바 라 본 증 언

2026 전직원 신앙사경회

기간 2026. 6. 16.(화) ~ 17.(수)

장소 예수병원 본관 4층 예배실



예수병원에서 만난 의료 선교의 가치

이번 예수병원 실습을 통해 느낀 소감을
짧게 나눠주세요.

예수병원 실습 기간 동안 모든 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 안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강의와 만남을 통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제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종교가 없는 상태로 참여하였지만, 이곳에서 보고 배운 '베룩'의 자세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 저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제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수병원의 선교 정신에 대하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선교병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이 있어 감사했고, 그 현장을 지키고 계신 선배 의료 선교사님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과 아무 연고가 없던 사람들을 하나의 가치 아래 모이게 한 공동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 예수병원의 역사,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섬김의 도구로 삼는 분들을 곁에서 보며,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저에게도 그 마음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어떤 의사로 살아가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묻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세의대 본과 4학년
의료 선교학 실습 소감

실습기간 2026. 3. 23.(월) ~ 6. 12.(금)

실습장소 예수병원

김병선 과장님 강의 한줄평

학생들에게 밤과 야외 활동을 경험시켜주고 예수병원 역사와 개인 선교 경험 그리고 학생들 컨설팅까지 평하고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허승곤 과장님 강의 한줄평

신경외과 분야에서도 선교지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치유로 걸어온 100년, 여수애양병원의 선교와 비전

여수애양병원



1909년 광주나병원에서 출발한 여수애양병원은 사회적 편견과 고통 속에 있던 한센병 환우들을 품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원이다. 1926년 여수 울촌 신평반도로 이전한 이래, '선교·진료·봉사'라는 영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명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을, 질문을 통해 살펴본다.

Q.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원 여수애양병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설립 목적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한센병 환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즉 여수애양병원은 처음부터 '선교·진료·봉사'의 정신 위에 세워진 병원이었습니다. 의료를 통해 몸을 치료하고, 복음을 통해 마음을 위로하며, 봉사를 통해 삶의 회복을 돕는 것이 여수애양병원의 출발점이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체성입니다.

Q. 주요 선교 활동은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병원의 미션인 선교·진료·봉사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원 내 원내 예배, 기도, 신앙 상담을 통해 환자와 직원들이 영적 돌봄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진료 지원과 후원 연계를 지속합니다. 셋째,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해외 의료 취약 지역과 선교지에 물품과 장비를 나눔으로써 국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Q. 애양원 역사박물관의 설립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수애양병원과 애양원이 걸어온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존하고, 그 안에 담긴 신앙과 의료 선교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환우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의 산 증거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차별과 편견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자 병원의 뿌리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공간입니다.

Q. 선한 사마리아인 기도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았던 성경 속 정신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회는 병원의 환우와 직원,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병원을 영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한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제 사랑과 나눔이 흘러가도록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Q. 여수애양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사랑, 봉사, 치유, 소통,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와 재활 중심의 전문적인 진료 역량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유의 숲, 역사박물관, 토폴하우스 등 병원이 가진 역사·신앙·치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방문객과 지역사회에 애양원의 정신을 깊이 전하고,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향한 의료 선교와 봉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사로 성장시켜 준 고마운 ‘처음’입니다

효자내과 김미애 원장

처음은 누구에게나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설렘과 기대, 다짐 등이 어우러지며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 효자내과 김미애 원장에게 예수병원은 잊지 못할 처음이다.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자, 나아갈 힘이 되어주고, 내과 의사로 태어나게 해준 시작점. 모든 순간이 감사했던, 소중한 처음을 되새겨보았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채운 따뜻한 마음

‘당연한 선택’. 김미애 원장이 수련병원으로 예수병원을 선택한 데는 어떤 이유도 없다. 그저 당연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믿음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안겨줬다.

“예수병원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듯이 따뜻한 관심과 넘치는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김 원장은 너무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으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제 막 새하얀 가운을 입은 초짜 의사는 스승님들의 아낌없는 헌신 덕분에 내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어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사로 나아갈 힘을 얻기엔 충분했다. 예수병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내과 의사라는 자존감이 가득 채워지며 개원할 용기도 낼 수 있었다. 레지던트 1, 2년 차에 실수도 따뜻하게 감싸주며 가족 같은 편안함을 안겨준 간호사들도 기억에 남는다. 여느 병원과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는 힘든 수련의 시절 버팀목이었다. 수련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격려와 친절하고도 엄격한 가르침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모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며

생명의 숭고함을 깨닫게 한 경험도 잊지 못한다. 김 원장이 인턴 과정을 밟던 시절만 해도, 독특한 장례 문화가 존재했다. 객지가 아닌, 집안에서 돌아가셔야 하는 문화가 그것이다.

“가느다란 숨을 내쉬는 고인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 그분 집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신고를 내리기 위해서였죠.

한번은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장수까지 간 적이 있는데, 무섭다기보다 내 손으로 잘 보내드리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의미 없는 행동 같지만, 한 인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데 손을 더하는 숭고한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예수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진정한 자세를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런 배움이 토대가 되어 개원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살핀다. 환자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깊이 숨겨진 마음을 읽으려 노력한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 환자들은 속내를 털어놓으며, 의사와 환자가 아닌,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유대감을 견고히 다진다. 30년째 한결같이 문턱을 낮춰 누구라도 언제든 편히 찾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만성질환부터 호흡기·소화기 질환, 노인성 환자까지 거의 모든 1차 질환을 다루며 너른 품으로 환자들을 품는다.

예수병원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준 모든 임직원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았다. 모든 이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부탁 역시 예수병원에서 느낀 따스함이 묻어났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용납하듯이 힘들고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원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박사
예수병원 내과 수련
예수병원 내과 전문의
전주 열린문교회 출석 중

현) 전주시여의사회 회장
현) 전주 효자내과의원 원장





익숙하다는 것과 안다는 것

글 혈액종양내과 박효숙 과장

나는 혈액질환과 종양(암)을 담당하는 의사다.
혈액질환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백혈구가 뭐예요?”, “혈소판이 뭐예요?”,
“골수가 뭐예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등등이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면역에 관여합니다.
혈소판은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지혈에 관여합니다.’
이런 나의 대답에 환자와 보호자는 외국어를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본태성 혈소판 증다증, 진성 적혈구 증다증,

다발성 골수종 같은 병명을 이야기하면 더 어리둥절해하며
그것이 무슨 병이냐고 다시 질문을 한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살아오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다.
치료법이나 예후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질환 자체를 모르는데,
설명에 만족할 리가 없다.
당뇨, 고혈압, 폐렴 등 흔한 질환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병인지를 묻지 않는다. 대부분 이미 알고 있다고 느끼고
본인이 이런 질환을 앓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뿐이다. 그런데 당뇨가 무슨 병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 대부분 당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
너무 익숙한 단어다.

우리는 익숙하면 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천국, 복음, 구원, 교회, 거룩 등이
매우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서 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일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믿고 있을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신앙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익숙해서 당연할 뿐이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이상, 더 나아가 기후
재난이 우리 곁에 있지만,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생활을
바꿀 생각은 별로 없다.
예수병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가? 예수 병원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안위나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다.

범위를 좁혀보면, 우리는 가족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일상을 보낸다. 남편, 아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존재들이다. 궁금할 것이 별로 없어 질문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 채 익숙한 삶을
이어간다. 매일 몇 번씩 응급실 환자들 중에 내가 봐야 할
환자는 없는지 명단을 확인한다. 최근에 부쩍 눈에 띄는
것은 자살 목적(?)의 급성 약물 중독이었다. 하루에 몇 명씩
우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앞당기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익숙한 것이 있을까?
나의 경우, 누가 나를 찾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되새기며 두려움을 느꼈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으로 생각하며 별로 이상하다고 못 느꼈었는데, 전공의
시절의 동료가 자기는 누군가 자기를 찾으면 칭찬받을 일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잘못 작동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어릴 때 엄마가 나를 부르면 주로 혼이 났던 경험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인지하고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익숙함을 앎과 착각하지 않고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는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고, 알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실제로 알기 위해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다.
익숙함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사회 환경,
자연환경, 가족, 그리고 자기에 대해 알기 위한 사소한
노력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첫삽...
재활의료 공백 메운다

7월 7일(화)
경향신문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7월 7일 예수병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전문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환자들이 광주·대전·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던 전북에 권역 단위 재활 의료 기반 시설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입니다.



예수병원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
최종 선정

7월 15일(수)
연합뉴스



예수병원은 7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 지역 권역응급 의료센터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대형 재난 대비, 지역 응급의료 인력 교육 등을 총괄하는 최상위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엄격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04.15.	투데이N	100년 전, 선교의 열매 확인... 미 세컨드장로교회, 예수병원 방문
2	04.21.	전라일보	예수병원, 내원객들 대상 장애인화 산부인과 홍보부스 운영
3	04.23.	국민일보	김병선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4	04.23.	국민일보	예수병원 '소아 응급 24시간'의 최전선
5	04.28.	뉴시스	예수병원, 제2주차장 준공식... '206대 동시 수용'
6	04.30.	국민일보	예수병원, 전주국제영화제와 동행... '예수병원상' 신설
7	04.30.	전민일보	예수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8	05.06.	전북도민일보	건강365 유방암 방사선 치료_ 예수병원 김정수 과장편
9	05.13.	브레이크뉴스	예수병원 '새내기 간호사 한 살 파티' 성료
10	05.20.	투데이안	예수병원 '방사선색전술(TARE) 100례' 달성
11	05.29.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 제19차 학술대회 임상간호연구 논문 발표회 성료
12	06.04.	한국기독교보	"치유와 생명의 방주 되길" 임현희 이사장, 예수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13	06.08.	국민일보	예수병원, 전 직원 신앙사경회 성료
14	06.12.	의학신문	전북병원회, 제55차 임시 이사회·학술세미나 개최
15	06.19.	전북도민일보	예수병원,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재난 훈련 실시
16	06.30.	이뉴스투데이	스웨덴·핀란드 기독교로진 예수병원 방문
17	07.02.	동아일보	다학제 진료로 심뇌혈관-중증외상 응급환자 즉각 조치
18	07.02.	CBS	135개국 기독교 의료인 제주 집결... ICMDA 세계총회 개막

PMC NEWS는 병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1 투데이N

100년 전, 선교의 열매 확인... 미 세컨드장로교회, 예수병원 방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컨드장로교회(Second Presbyterian Church) 방문단 4명이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을 찾았다. 세컨드장로교회는 전주완산교회 초대 담임인 위인사(Samuel D. Winn) 선교사와 그의 누이 위애미(Emily A. Winn)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적인 모교회다. 방문단은 전주기독교교단역사기념관과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 선교사 묘비를 차례로 방문했다. 호남 땅에 복음을 전하다 잠든 선배 신앙인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짚는 시간이었다.

예수병원, 내원객들 대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홍보부스 운영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원객들 대상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알리고, 장애 여성의 산부인과 의료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부인과 정태원 과장은 부스에 직접 상주하며 내원객을 대상으로 ‘1분 진료 상담’을 제공기도 했다.

예수병원 ‘소아 응급 24시간’의 최전선



소아청소년과 서요셉 과장은 “한밤중에도 아이들이 실려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진료합니다.” 지난 5월 개소 2주년을 맞는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호남 최초로 문을 연 이 센터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필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 그럼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마저 문을 닫으면 전북에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병선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김병선 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선교국장)이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받았다. 그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병원 신문 창간 40주년 기념식 및 제16회 중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병원 홍보와 선교, 국제 의료 협력 활동을 통해 병원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온 점이 반영됐다.

예수병원, 제2주차장 준공식… ‘206대 동시 수용’



새롭게 문을 연 제2주차장은 연면적 약 2,299평(7599㎡)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철골조로 건립됐다. 총 206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예수병원은 쾌적하고 넓은 주차 구획을 마련하고 최신식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외래 진료 환자와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병원 인근의 교통 혼잡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신규 제2주차장의 완공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전북권역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통합재활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필수 대체 주차장 확보라는 점이다.

6 국민일보

예수병원, 전주국제영화제와 동행... '예수병원상' 신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독교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영역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예수병원은 한국 단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후원하는 '예수병원상'을 신설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신진 영화인들을 격려하기로 했다. 예수병원은 또 영화제 기간 동안 공식 의료 지원 사역을 이어가며 현장을 찾는 수많은 관람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개막일부터 폐막까지 행사장 내에 안전 부스를 설치하고 간호사를 상주시켜 응급 처치와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7 전민일보

예수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예수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서비스 참여율 △간호 인력 처우 개선 △환자 만족도 및 감염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다. 예수병원은 앞으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9 브레이크뉴스

예수병원 '새내기 간호사 한 살 파티' 성료



'새내기 간호사 한 살 파티'는 '제55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회(신우회) 주관으로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지난 1년간 낯선 병원 환경과 간호 업무에 적응하며 열정과 책임을 갖고 근무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들의 성장과 응원 메시지가 전달됐다.

8 전북도민일보

건강365 유방암 방사선 치료 _ 예수병원 김정수 과장편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는 전절제술과 비교했을 때 생존율 면에서는 완벽하게 대등한 방법이다. 국소 재발 위험이 전절제술보다 약간 높을 수 있으나, 이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유방 보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이점은 약 4주간의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신체적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10 투데이안

예수병원 '방사선색전술(TARE) 100례' 달성



예수병원이 호남권 최초로 '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100례를 돌파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리며 간암 환자에게 희망을 전했다.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은 대한민국 방사선색전술(TARE)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이자 개척자다. 지난 2010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직 시절, 대한민국 최초로 방사선색전술 인터벤션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국내 간암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11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 제19차 학술대회 임상간호연구 논문 발표회 성료



예수병원 간호사와 예수대학교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예수병원 간호사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예수대학교 교수진과 협력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교수진이 연구 멘토로 직접 참여하면서, 병원과 대학이 함께 임상 발전을 이끄는 뜻깊은 산학 협력의 장이 되었다.

12 한국기독교공보

“치유와 생명의 방주 되길” 임현희 이사장, 예수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임현희 이사장(전주팔복산교회)이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발전 기금 1천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임현희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예수병원은 지난 1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을 지켜온 치유와 생명의 방주”라며, “녹록지 않은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동을 받아, 그 귀한 걸음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기금을 준비했다”라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13 국민일보

예수병원, 전 직원 신앙사경회 성료



호남 의료 선교의 산실인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교직원들의 영적 재무장과 의료 선교 사명 회복을 위한 ‘2026 전직원 신앙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사경회는 예수병원 원목실 주관으로 ‘Re:Witness (다시 바라본 증언)’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겪는 긴장과 피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4 의학신문

전북병원회, 제55차 임시 이사회·학술세미나 개최



‘의료의 세계화와 병원 경영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전북병원회 행사에서는 지역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임시 이사회와 실무 중심의 학술 강연이 진행됐다. 신충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북병원회가 지역 의료 질 향상과 경영 선진화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15 전북도민일보

예수병원,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재난 훈련 실시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재난 훈련을 시행했다.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원내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가상 시나리오로 설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원내 최일선인 응급센터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전체의 재난 위기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6 이뉴스투데이

스웨덴·핀란드 기독의료진 예수병원 방문



이번 방문단을 이끈 요한 셈비(Johan Semb) 스웨덴 린셰핑 의과대학 교수(60, 한국명 박경화)의 남다른 인연이 눈길을 끌었다.

2살 때 스웨덴으로 입양돼 안과 전문의로 성장한 셈비 교수는 현재 스웨덴 기독의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셈비 교수는 의대생 시절이던 34년 전, 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17 동아일보

다학제 진료로 심뇌혈관-중증외상 응급환자 즉각 조치



전북 전주 시민들 사이에선 '우리 집은 3대째 이 병원을 다닌다'는 말이 자연스레 통용된다. 올해 개원 128년을 맞은 예수병원은 1898년 의료 불모지였던 이곳에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작은 진료소를 연 이후 늘 국내 최초 기록을 써내려 왔다.

1930년 국내 첫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를 도입했으며, 1949년 국내 최초로 체계적인 수련의(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1963년에는 국내 첫 암 등록 제도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지역 중증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3차보다 강한 2차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18 CBS

135개국 기독 의료인 제주 집결… ICMDA 세계총회 개막



전 세계 100여 개국 기독 의료인이 제주에 모여 의료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있다. 세계 기독 의료치과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2026 제18회 국제기독교의료치과협회(ICMDA) 세계총회'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 조직위원장은 예수병원 영상의학과 김윤환 과장이 맡아 대회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ICMDA 세계총회는 196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5개국 80여 명의 대표단으로 시작된 이후 4년마다 열리며 세계 기독 의료인들의 연합과 선교 협력을 이끄는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성장해 왔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 기금
후원 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131-020-826222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발전기금

1천만 원 이상

故공순구 예수병원 전 간호부장(오보환·전소영·전지은)
이태환(송천연합내과의원 원장)
임현희(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정진영(바른영상의학과의원 원장)

5백만 원 이상

배철(배철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송금순
(주)덱스솔루션

1백만 원 이상

김기복
이광영
이상욱 김미희
전미중앙교회
황지욱

전북권역재활병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기금

1천만 원 이상

김경아(산부인과 과장)
김선례(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 대표)
윤용순(재활의학과 과장)

1백만 원 이상

박상호(소아청소년과 과장)
숲속하나어린이집

* 2026. 04. ~ 06. 기준 (*구간별 가~다 순)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목, 금	화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수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비만	-	화, 목, 금
	김미진	성인병, 건강검진, 검진초음파	-	수
	이혜규	성인병, 만성질환, 검진초음파, 금연, 비만	-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췌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이정재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췌장질환)	월~금	월~금
내과	김수민	건강검진(소화기내시경)	월~금	월~금
	최진희	건강검진(내시경)	월~금	월~금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화, 수, 목	월, 화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수, 목, 금	화, 수, 목, 금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수, 금	화, 수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목,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목	월, 수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금	화, 수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수, 금	월, 목
	박호경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목
	노건주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목
	류재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금	-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실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극도자절제술	-	-
순환기내과 230-1350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월, 수, 목	월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월,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
	문혜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화, 목	목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신장내과 230-1300	정승희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목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내과	혈액종양 내과 230-1300	박효숙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목 월, 목 수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 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 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 결절, 만성기침	화, 금	화, 수
	마취 통증의학과 230-1580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한동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백승민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방사선 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김정수	유방암, 자궁암	화, 수, 목	화,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 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화, 수, 목	화, 목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화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질환	화, 목	월, 화, 목	
	곽현미	소아 호흡기	월, 금	월, 수, 금	
	황동진	소아감염질환	목, 금	수, 목, 금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이진호	소아응급	평일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강동구	안면거상, 뺨따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신경외과 230-1420	허승곤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오치성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	화, 금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김형일	뇌전증, 파킨슨병, 뇌종양, 소아 뇌질환	화	수	
	안과 230-1450	송영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월, 수, 목, 금
안성현		망막, 백내장, 포도막염, 미숙아 망막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대표전화 1899-1843,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여성 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과,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진화 산부인과 진료	화, 목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정수연	흉부·심혈관계	월~금	월~금	
	노경희	유방	월~금	월~금	
	박병균	인터벤션	월~금	월~금	
	최진술	복부, 비뇨생식	월~금	월~금	
	간담체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수	화, 수	
김은영		외과응급	금	월, 목	
대장 항문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정진웅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	-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수, 목	목
상부 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영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외과 유방· 갑상선외과 230-1400		김철승	유방·갑상선	화, 금	화
		김예정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월, 목	목
	최은혜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화, 수	월, 수	
	혈관·이식 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월, 수, 금	화	
소아외과		김예정	소아외과	월, 목	목
흉부외과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화, 금	월
국제진료소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	-	
응급의학과 230-8280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심동오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유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민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한민정	소아응급	월~일	월~일	
	장현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금	화, 목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화, 목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오톤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목, 금	화, 수, 목, 금
	유기배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화, 수, 금	화, 목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수, 목	화, 수, 목, 금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태환	중추신경계 재활, 근전도, 연하재활,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월, 수, 목, 금	월, 화, 금
	최말레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화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란병	월, 화, 목	월, 수, 목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형외과 230-1430	박경환	조현병, 기분장애(우울&조울), 화병, 불안장애(공황장애·사회공포증), 신체화상해, 불면증, 정신치료	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정의섭	고관절, 골반	월, 수	-
	신홍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김영찬	슬관절 및 족부족관절	수, 금	월, 수, 금
	고준희	척추, 외상	수	화, 수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역학검사	월~금	월~금
치과 230-1540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금	월~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경검, 검사정보화	월~금	월~금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월, 수,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월, 화, 수	월~금
	김민우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화, 목	월, 수

You Make Me Warm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 -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